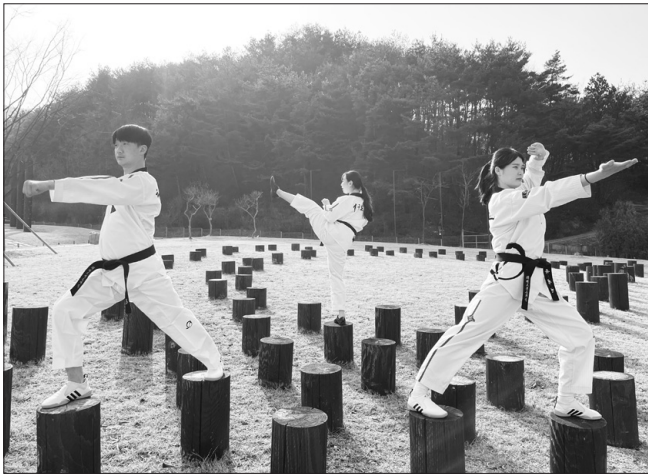


# '태권시티 무주' 완성 청신호 중소기업 경영안정 돕는다

### 무주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돌봄·교육·취업·정주 모두 가능한 무주 기대

무주군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면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범지역은 시범 운영을 거쳐 지정 대상으로 우선 검토된다.



무주군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사진은 태권도원 전통무예수련장 발기술 수련 모습)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으로 신청했던 무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교육지원청은 시범지역 선정에 계기로 태권도원, 지역대학 등과 교육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태권시티 무주'를 비전으로 내세운 무주군의 주요 사업은 △태권도 방과 후·늘봄교육 운영과 △초·중·고등학교 태권도 공교육 체계 구축(태권도 육성·지원, (가칭)전북태권도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운영 및 설립 타당성 조사·학생유치 MOU, 학교-대학교 간 교육협력 및 대학 진학·취업 연계 강화, 국내외 학생유치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비롯해 △대학(연계) 진학과 취업·정주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지역인재 입학 특별전형 확대를 통한 태권도 대학 진학, 무주군 태권도 관련기관 취업과 정주, 태권도 교육발

전특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로 특화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돌봄과 교육, 취업과 정주가 모두 가능한 태권도시티 무주를 완성해낼 것"이라며 "이는 정주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무주군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회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는 대한민국 국가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품고 경기와 체

합, 수련, 교육과 연구, 교류가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인 태권도원(2014. 9. 개원·4천석 이상의 경기장, 4백석 이상의 공연장, 1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가능한 연구와 국제회의 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이자 평화의 사절을 육성하는 대화원대학 개념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문체부)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한 국비 10억 원도 요청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진... 최대 2억원 지원

장수군은 고물가·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수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최대 2억원까지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군으로부터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은 협약 은행인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를 통해 2%의 저렴한 이자로, 2년 거치 일시상환(1년 연장 가능)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특산물 생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 등 장수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이다. 군 민생경제과(063-350-2183)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군의 자금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 스마트 빌리지 보급·확산사업 공모 선정

###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분야

무주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2024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분야에 선정된 무주군은 2025년까지 2년간 관내 경로당 100곳을 선정(2024년 55곳, 2025년 45곳)하고 이곳에 화상회의 및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 해피태이블(여가 프로그램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 등을 설치(총사업비 15억 6천여만 원, 국비 70%)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여가, 복지서비스(건강상담 및 교육 등 진행)와 건강관리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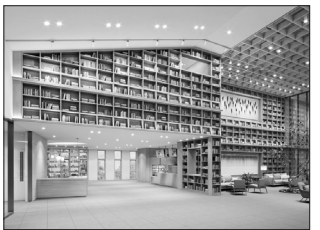
스(혈압, 맥박, 혈당, 체중(BMI), 체지방) 등 건강정보 수집을 통한 건강관리 제공을 예정으로, 디지털 공간 구축을 통해 경로당 다기능화와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소외 및 격차 해소, 효율적인 노인복지 네트워크 기반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과장은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은 노인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전체 인구의 37%를 육박하는 무주군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과 여가, 교육, 복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책 통해 상상력 키우는 공간 '무주상상반디숲'

###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명칭 확정... 5월 말 개관

무주군은 5월 말 개관을 앞둔 복합문화도서관의 명칭을 '무주상상반디숲'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무주상상반디숲

'무주상상반디숲'은 책과 사람, 자연과 반딧불이를 모티브로 이름 지은 것으로 책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또 사람과 숲이 공존하며 활력이 솟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반딧불이로 가득한 생명의 숲에 비유해 복합문화공간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복합문화도서관 명칭 공모를 진행해 35인이 접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 '천연기념물 반딧불이', '자연특별시 무주'에

대한 생각을 접목해 명칭을 확정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공감과 소통, 지식문화의 장으로서 복합문화도서관의 기능을 살리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다"며 "무주상상반디숲이 모두의 바람과 기대대로 완성이 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상상반디숲'은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78-4 일원에 연면적 4,686㎡,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 중이다. 형설지공문화도서관(2~3층-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문화교육실 등)과 무주군 가족센터(지하1~2층- 공동육아나눔터, 교류소통공간, 실내놀이터, 요리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등), 무주생 활문화센터(지하층- 마추침공간, 다목적홀, 미투교실, 교육실, 방음공간 등)가 입주할 예정으로 오는 5월 말 개관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오늘 재개장

진안군의 관광명소인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가 3월 4일 개장한다.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안군은 재개장에 대비해 구름다리 등산로를 재정비하는 한편 부대시설을 보충해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시설 확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는 명도봉에서 명덕봉까지 220m 길이로 이어진 구름다리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운일암반일암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껴볼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는, 입장료는 물론 주차장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운일암반일암 개장과 함께 고로쇠 수액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3월 9일~10일 운일암반일암 삼거리광장에서 개최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 지역 소식 통

### 최훈식 장수군수,해빙기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달 28일 해빙기 및 우기철에 대비해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장수리와 선창리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현장점검은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 비탈면 붕괴나 지반침하, 구조물 변형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발 빠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했다.

군은 4월 15일까지 관내 급경사지 148개소에 대해 전문기관 안전 점검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해빙기 및 태풍·호우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최훈식 군수는 "급경사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험지역은 응급재설치 등을 통해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소규모 사업주 중대재해 예방역량강화 교육

진안군은 지난달 29일 마이산 산악초타운에서 소규모 사업주 2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혼란스러울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군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본부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인식개선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을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